

말레이시아, 무알코올 음료 및 특정 성분 함량 관련 라벨 표시 기준 업데이트



무알코올 음료의 라벨링, '통밀' 표시 및 설탕·소금 함량 표시에 주의해야

말레이시아 보건부(MOH)는 무알코올 음료의 라벨링 규정을 공식적으로 관보에 발표하고, 일부 성분의 함량과 관련된 라벨 표시 기준을 업데이트함

한국은 라면, 커피, 과자와 주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고 있음. 따라서 말레이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라벨 표기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, 업데이트되는 규정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수출 시 라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

〈무알코올 음료 및 성분 함량 관련 라벨 표시 기준 주요 변동사항〉

(1) 무알코올 음료

- 알코올 성분이 제거된 모든 음료(알코올이 첨가된 이후에 제거되어 무알코올로 변경된 음료)는 라벨에 표준 무알코올 용어의 사용을 금지함
- 알코올 제거 처리를 통해 무알코올 음료가 된 경우, '알코올 성분이 제거됨(Dealcoholised)'이라는 문구가 제품명과 균일한 글씨로 표기되어야 함
- '알코올프리', '0 알코올', '제로 알코올', '무알코올', '알코올이 없음', '청량음료', '주스' 또는 유사 표현은 라벨에 사용할 수 없음

(2) 통밀/통곡물

- '통밀' 또는 '통곡물' 용어는 통밀/통곡물이 밀가루, 쌀가루, 쌀, 곡물의 100%, 빵의 60% 이상, 이외 모든 제품의 1회당 제공량이 25% 이상 또는 8g 또는 이상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
- 통밀 또는 통곡물 함량의 백분율은 라벨에 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함

(3) 설탕/ 소금

- 제품 라벨에 명시된 대로 100g당 또는 100mL당, 또는 1회 포장(단일 포장) 및 1회 제공량에 따라 밀리그램(mg)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해야 함

출처

Food navigator, 'Enforcing nutrition': Malaysia formally updates zero alcohol beverage rules amid spate of labelling updates, 2022.08.03